

# 나주시, 부실시공 점검반 운영 건물 안전성 강화

1억 미만 소규모 공사 260건 대상 전봇대 미이설 등 48건 보완 조치 안전 지역 건설문화 분위기 조성

전국적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신축 건물 하자 논란 사례가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부실시공 점검반에 팔을 걷어붙였다.

나주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2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잔토나 폐자재 방치, 안전장구 미착용, 전봇대 미이설 등 4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돼 조치중에 있다.

상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1분기 지적률 30%에서 2분기 지적률은 16%로 감소했고 현장 점검 시 공사 감독

관과 건설업체를 입회해 안전·품질 건설 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였다.

단순히 현장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직무 교육 시 주요 지적사례와 우수사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와 분기별 사례전파를 통해 근본적인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상시 점검반 운영을 통해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한 시공 품질 확보에 나서겠다”며 “부실시공 예방, 체계적인 현장관리 등 보다 안전한 지역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 교육 이행점검

나주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나주시사무소와 함께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이행점검을 오는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가 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17개의 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나주시에서는 17가지 준수 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이수의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규 교육(대면, 온라인) 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간편 교육은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자신

의 스마트폰에 발송된 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자동전화 교육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걸려온 수신 전화로 5분간 교육내용을 청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1644-3656에 전화를 걸어 참여할 수 있다.

만일 농가가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해 받게 된다. 동일한 준수 사항을 2년 연속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나주시는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가 충실히 준수사항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12주 동안 어르신 대상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주시보건소 제공

## 나주시보건소, 어르신 12주간 ‘근력 강화 프로그램’ 성료

나주시보건소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한 12주간의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1일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전·후를 비교한 체력 검진 결과 체력 검사 항목(근기능상지, 근기능하지,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고,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당 등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력 검사 항목별 비교 검진 결과는 △근기능상지(상대악력) 32%→37.9% △근기능하지(의자에 앉았다 일어시기) 12회→15회 △심폐지구력(2분 제자리 걷기) 93회→107회 △유연성(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11.3cm→14.8cm △형성(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음의 값이 향상) 7.5초→7.1초 △협응력(8자 보행/음의 값이 향상) 31.9초→31.5초로 향상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주시노인복지관에

서 어르신 25명이 지속 참여해 의자와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근력·지구력 강화 운동, 유연성·균형성 운동, 낙상 예방 생활 수칙 교육 및 운동으로 운영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낙상 예방을 위해 신체의 근력과 균형 기능 향상에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 오는 9월21일까지 주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 천연염색문화재단,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달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재)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9월21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주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의 후원, (재)전남도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4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이다.

교육은 가족 단위부터 성인 및 시니어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14회(가족반 7회, 시니어반 7회)로 진행되며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음악과 천연염색을 융·복합적으로 접목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창의적 자기 표현력과 예술적 소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이 함께 어울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이지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내면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을 담은 교육으로 사회적 교류와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착한가격업소 20개소 신규 모집... 26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20개 업소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상태,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설치, 종량제봉투 및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각종 카

드사 연계 할인, 배달료 지원(9월 시행),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시 5% 추가 할인(8월 중순 시행)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원하는 사업주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가격표 사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2hj08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내달 6일까지 현지실사 및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를 거쳐 같은 달 11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표찰

제작 역시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관심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개별주택 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독주택 등 1257호 대상

나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기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용도 변경, 신축 등 특성 변동

이 있었던 단독주택 등 1257호이다.

이 절차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나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